

“득점왕 압박감 이겨내고 더 나아지겠다”

손흥민, 英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와 인터뷰 “아직 완벽하지 못한 선수… 발전할 수 있어”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통산 100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지난 시즌 득점왕의 압박감을 이겨내고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축구의 에이스인 손흥민은 11일(한국시간) 영국의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와 인터뷰에서 “지난 시즌은 환상적이었다. 득점왕을 차지한 것은 엄청난 자신감을 준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손니(손흥민의 별명)는 득점왕’이라며 나에게 또 다른 엄청난 활약을 기대했다. 하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고, 더 많은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23골을 넣어 무함마드 살라흐와 함께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올 시즌 득점 페이스가 확 줄어들었다. 전반기에는 리그 3골을 넣는데 그쳤다. 후반기 들어서는 그나마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7골을 기록 중이다.

지난 주말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넣은 7호 골은 손흥민의 EPL 통산 100호 골이기도 하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 오른 고지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2015년 7월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손흥민은 약해진 득점력에 대해서 변명

하지 않았다. 그는 “변명하자면 많은 변명 거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난 ‘그런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며 변명하는 타입이 아니다”라면서 “내가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난 압박감을 좋아하는, 아직 완벽하지 못한 선수다. 아직 발전할 수 있다”면서 “마지막 리그 8경기는 나와 팀에 매우 중요한 경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라이턴전에서 골을 넣은 것처럼) 여전히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고 더 나은 플레이를 펼치고 싶으며, 득점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방법으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16승 5무 9패로 리그 5위(승점 53)에 자리해 있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UCL) 출전권이 주어지는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56)와 격차는 승점 3이다. 6위와 격차는 승점 6으로 벌어졌다. 애스턴 빌라(승점 47)가 브라이턴(승점 46)을 제치고 6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EPL에서 100골을 달성한 것은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승점 3을 얻은 것”이라며 “브라이턴은 순위표에서 우리 바로 아래에 있는 팀이다. 브라이턴전 승리의 의미는 크다”고 강조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EPL에서 100골을 달성한 손흥민이 영국 매체 인터뷰에서 “아직 발전할 수 있다”며 다짐을 밝혔다.

로이터-연협뉴스

MLB, 새 규칙 도입 ‘변화의 바람’ 부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올 시즌에 피치 클록(투구시간 단축) 등 새 규칙을 도입하면서 시즌 초반부터 기대했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11일(한국시간) “올 시즌 메이저리그가 새로운 규칙 도입으로 공격적인 플레이가 향상돼 팬들의 흥미를 끌고 있으며 평균 경기 시간도 31분이나 단축됐다”고 보도했다.

피치 클록은 주자가 없으면 15초, 주자가 있어도 20초 이내에 투수가 공을 던져야 하는 규정이다. 타자도 피치 클록이 끝나기 8초 전에 타격 자세를 취해야 한다. 투수가 피치 클록을 어기면 ‘볼 1개’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타자가 어기면 ‘스트라이크 1개’가 선언된다. 개막 후 11일간 피치 클록 위반은 141경기에서 125번 발생해 경기당 0.89개를 기록했다.

피치 클록과 함께 도입된 ‘베이스 확대’와 ‘시프트 금지’ 규정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새로 도입된 규정 때문에 시범 경기 때부터 투수와 타자들의 불만이 쏟아졌지만 목표했던 경기 시간 단축 등 분명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반대했던 선수와 감독들도 차차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테리 프랑코나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감독은 “새 규칙이 경기하는 데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여러 효과가 있다면 새 규칙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한성 기자 hsrin@skyedaily.com

KPGA 코리안 투어도 시즌 ‘활짝’

13일 제18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개막… 사상 최대 상금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가 사상 최대 상금을 내걸고 시즌을 연다.

KPGA 시즌 오픈전은 13일부터 나흘 동안 강원도 춘천 라비에벨 컨트리클럽 울드코스(파72)에서 열리는 제18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총상금 7억 원)이다.

KPGA투어는 올해 사상 최대 상금을 준비했다. 아직 상금을 확정하지 않은 4개

대회가 작년만큼 상금을 책정한다면 250억 원인데,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있어서 260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KPGA 투어 총상금이 250억 원을 넘긴 건 올해가 처음이다. 총상금이 가장 많았던 건 지난 시즌의 203억 원이었다. 대회도 작년 21개보다 3개 늘었다.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은 총상금과 우승 상금(1억4000만 원) 규모는 크지 않

지만 KPGA 투어에서 위상이 남다르다. 우승하면 일반 대회보다 1년 더 긴 3년 시드를 준다.

코오롱 그룹이 운영하는 라비에벨 컨트리클럽 울드코스는 작년 이어 2년 연속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을 개최한다. 4라운드 함께 우승 스코어가 10언더파가 말해주듯 몹시 어려운 코스는 아니지만 만만치도 않다. 작년과 달리 파71에서 72로 조정된 점이 변수다.

파4홀이던 11번 홀이 올해는 파5홀로 바



작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우승자 박상현. KPGA

뀌었다. 작년 11번 홀은 평균타수 4.43타로 선수들을 괴롭혔다. 이 홀에서는 나흘간 보기 143개, 더블보기 24개, 트리플 보기 3개가 양산됐다. 이번에는 전장이 30야드 가량 늘어나면서 파 5홀로 변신해 오히려 반드시 버디를 잡고 넘어가야 하는 곳이 됐다.

KPGA 투어의 간판 박상현은 대회 2연패를 노린다. KPGA투어 11승을 올린 박상현은 통산 상금 43억8656만 원으로 1위에 올라 있다.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은 지금까지 한번도 연속 우승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두 번 우승한 선수도 아직 없다. 박상현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13번 우승(일본 투어 2

승 포함)하면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적이 없다.

박상현은 개인 첫 타이틀 방어 성공에 대회 첫 2회 우승, 대회 첫 2년 연속 우승 등 세 마리 토끼잡이에 나서려는 셈이다. 박상현은 “개막전에 맞춰 경기 감각과 체력, 컨디션 모두 끌어올렸다. 대회 코스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라고 말했다.

문도엽, 최진호, 이동민, 이기상, 강경남, 허인회, 전가람 등이 대회에서 우승을 맞본 역대 챔피언들도 두 번째 우승 경쟁에 가세했다. 지난해 군 복무를 마친 전가람은 이번이 KPGA 투어 복귀전이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